

전북도, 신년 '3대 도전·7대 변화' 로드맵...대도약 시동

'여민유지' 포부...도민과 성과 완성
'3대 도전' 올림픽 유치 역량 결집
피지컬AI 구축·메가샌드박스 도입
은빛일터 등 '7대 민생 변화' 약속
광역교통망 구축 생활권 확장

전북도는 2025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2025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그간 도전의 결실을 도민과 함께 완성하겠다는 여민유지(與民由之)의 포부를 5일 전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5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도정 운영 방향으로 '도전경성의 처음과 끝, 도민과 함께'라는 회견문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2025년은 전북을 5급 3특 핵심 무대 위로 세우고, 미래먹거리 확보에 집중한 한 해였다"고 전했다.

전북지치도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비수도권 연대와 지역균형 발전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으로 승부, 서울과의 대결에서 49대 11이라는 압도적 결과로 국내 후보 도시 선정을 이끌었다. 또 28년 간 멈춰 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전북 핵심 교통인프라 사업에 국비 지원의 길을 열었다.

특히 피지컬AI PoC 실증사업 선정과 협약면제 확정으로 미래산업의 기반을

민과 함께 도전의 결실을
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丙午년 새해
전북 도정·교육 시동

5일 김관영 도지사는 도청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도전경성의 처음과 끝, 도민과 함께'라는 회견문을 발표했다.(사진 左). 5일 전북자치도교육청 시무

<사진=전북자치도, 전북자치도교육청>

다졌으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도민 삶의 반경을 넓혔다. 대규모 SOC 사업종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도 전북자치도는 사상 최초로 국가예산 10조원 시대를 여는 성과를 냈다.

2026년 김관영 도정의 중점과제는 그간의 결실을 확장하고 한계를 넘어 전북 도약의 기반이 될 3대 도전과 7대 변화로 구성돼 있다.

3대 도전의 첫 번째는 전주 하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해 전북자치도에 국가 역량을 집중시키고, 지역발전의 시계를 앞당기는 한편 균형발전의 모범사례로

서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 도민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포부다.

두 번째로는 피지컬 AI 생태계의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2026년을 공동 연구개발센터와 실증 메타페토리, NPU 기술 실증 등 피지컬 AI 핵심 인프라 구축에 교두보가 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도전으로는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도입이다. 특히 규제 특례의 첫 단추인 험프산업 실증모델 안착과 산업클러스터 건립의 기반을 다진다

는 각오다.

이어, 도민 삶의 걱정은 덜고, 행복을 채울 7가지 변화의 다짐도 담았다

첫째, 아이의 웃음부터 어르신의 노후 까지 빈틈없이 책임지는 '전북형 통합 돌봄망'을 완성하고, 신중년의 경륜을 지역의 일자리로 옮겨 활력 넘치는 '은

빛일터'를 조성한다.

둘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20조 투자유치를 이루어내고, 기업과 일자리에서 생긴 지역경제 활력이 도민 안방 곳곳까지 달도록 한다.

셋째, K-컬처의 정수와 창의적 영감

을 산업의 가치로 확장해, 품격 있는 문화경제 시대의 막을 열고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전북을 만들어 도민의 일상을 예술로 물들인다.

네 번째 동서남북을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한 도로망을 구축해, 도민과 경제가 함께 달릴 수 있는 사통발달 패속 교통시대를 개막한다.

다섯 번째는 주력산업의 똑똑한 진화로 미래 산업의 확실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탄탄한 RE100 기반 위에 '에너지 대전환을 이끄는 대표주자'로 나선다.

<2면에서 계속>

전북도의회 시무식
'행백리자 반구십'

2026 시무식 개최...신년사·표창 수여
문승우 의장 "유종의 미 거두자" 당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일 의원총회의실에서 2026년도 시무식을 가졌다.

이날 시무식에는 문승우 도의장과 김형우 사무처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인사 동영상 시청, 신년사, 우수 공무원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문승우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행백리자 반구십(行百里者 半九十, 백 리를 가려는 자는 구십 리를 가지고서도 이제 절반쯤 왔다고 여긴다)'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시작이 아무리 좋았더라도 마무리가 흔들리면 그간의 노력을 온전히 평가받기 어렵다"며 "도민들로부터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마지막 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당부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공무원 시간의 가치' 철학을 언급하며, "여러분의 1분 1초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책임의 시간임을 명심하고, 새해에도 도민의 소중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각오로 힘차게 걸어가자"고 재차 독려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시무식을 계기로 도민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국주영은 도의원, 정청래 당대표 특별보좌관 임명

지방정치 20년 경력 '전문·현장성'
호남 첫 여성 의장 상징성 부각
지역 국정과제·정책 조율 수행

더불어민주당 국주영은(전주12)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이 정청래 당대표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이번 임명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주영은 의원이 지난 20년간 전주시의원과 전북도의원을 거치며 쌓아온 지방정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국주영은 도의원

당대표의 정치 노선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북 최초 이자 호남 최초의 여성 광역의회 의장으로서 보여준 상징성과 정책 리더십이 '강한 민주당'과 '당원 주권'을 강조하는 정청래

국주영은 특보는 '개혁과 변화를 주도하는 정청래 당대표를 가까이서 보좌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영광스러운 마음'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전주와 전북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

원과 정책적 관심을 전주로 끌어오는 '실천하는 특보'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임명으로 국주영은 특보가 여권 핵심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허리인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차기 전주시장 후보 경선 구도에서 국주영은 특보의 정치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주영은 특보는 전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며, 오는 15일경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다. /장정철 기자

전북교육청 시무식 "학력신장·책임교육"

새해 사자성어 '마부정제' 제시
AI·역사 교육 등 올해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 창조나래 시정각실에서 2026년 새해 업무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을 개최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직원들은 맑은 해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한국 교육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전북교육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시무식은 학생과 교직원 새해맞이 영상 시청, 락 케이크 커팅식, 문화

공연, 전입 공무원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한 '마부정제(馬不停蹄)'를 언급하며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에 한층 정성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유 권한대행은 6일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을 중심으로 AI교육과 역사교육 등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謹賀新年

2026년 병오년, 시민과 함께 희망찬 도약으로 비상하는 전북이 되겠습니다

道, 수입 축산물판매업소 위생단속··불법 유통 차단

ASF역학조사서불법반입우려제기
무신고보관·판매·무허가제조단속
이달23일까지3주간집중점검

전북도는 도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수입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위생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충남지역에서 발생

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조사 과정에서 외국인 축산물 판매업소를 통한 불법 반입 축산물 유입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신고 수입 축산물의 보관·판매 행위와 무허가·무신고 업자의 축산물 제조·생산 여부 ▲식육가공품 원재료 적합성 여부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무신고 수입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보관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병의 도내 유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신고 수입 축산물의 보관·판매 행위 ▲무허가·무신고 업자의 축산물 제조·생산 여부 ▲식육가공품 원재료 적합성 여부 ▲축산물 위생관리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무신고 수입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보관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장정철 기자

1면에서 이어서

저출생 대책으로 출산율 10명 회복
벤처펀드 1조 기반 유니콘 육성
K-컬처 글로벌 문화경제 거점 도약

여섯 번째 청년농의 안정적인 창업과 경영기반 구축을 도와 성공적 농업경영 인으로 이끌고 대한민국 스마트 청년 창업농의 수도로 거듭난다.

일곱 번째 든든한 저출생 대책으로 부모의 걱정을 덜어내 '합계출산율 1.0명 시대'를 회복하고 전 주기 지원으로 도내 청년의 희망을 채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이 가는 길이 곧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될 것이라는

각오로 산업구조 전환과 미래 첨단산업을 키워왔다"며 "이제는 도민들이 고루 행복한 모두의 전북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없이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북도정의 더 큰 도약과 도전을 약속 (PROMISE)하는 분야별 중점 추진계획도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민을 온전히 지키는 복지·안전사회 ▲포용적 경제로 다시 일어서는 기업·소상공인, ▲K-컬처로 세계와 연결되는 전북, ▲새만금과 교통 대동맥으로 여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첨단 신산업기지로 태동하는 혁신, 열리는 미래, ▲대한민국 첨단 농생명산업수도, 전북, ▲5국 3특데스

베드 전북특별자치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벤처펀드 1조 원을 기반으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는 역동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상생의 경제 구조를 구축한다. 창업·금융·성장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전북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은 K-컬처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는 문화·관광 거점으로 도약한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법정부적 동력을 확보하고, 문화인프라 확충과 콘텐츠 인재·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 문화가 곧 경제이자 삶의 기쁨이 되는 전북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KDLC 전북지역회의 신년인사회···자치분권 결의

도지사기초단체장·지방의원총집결
전북 대전환·자치분권 강화 다짐
“연대·협력으로 전북 미래 열자”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전북지역회의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자치분권 강화와 전북 대전환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KDLC 전북지역회의는 지난 4일 전주에서 권익현 상임대표(부안군수)를 비롯해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원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일반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초단체장 공동대표인 우범기 전주시장, 정현율 익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전준성 전안군수, 황인룡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최영일 순창군수, 심덕섭 고창군수가 자리에 함께했다.

또 광역의원 공동대표인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기초의원 공동대표인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일반회원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전북지역회의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자치분권 강화와 전북 대전환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사진=KDLC 전북지역회의>

공동대표인 한득수 임실축협조합장, 여성회원 대표인 온정이 전 전북여성단체 협의회장 등 전북을 이끄는 각계 리더들이 종출동해 자치분권의 의지를 높였다.

특히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문정복·강득구·이건태 국회의원과 유동철 후보자가 참석했다.

또 광역의원 공동대표인 문승우 전북

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기초의원 공동대

표인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일반회원

또 참석자들은 지방소멸의 절박한 위

기 앞에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유일한 열쇠는 강력한 자치분권이 핵심이라며 전북 발전을 위한 원팀(One Team) 정신을 확인했다.

권익현 상임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방 오년 새해, 우리 전북의 시·군이 연대하고 협력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북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장정철 기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4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직에 따라 실시되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개혁과제 추진과 민생입법 처리에 골장 나설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라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한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로 일하며 대야 관계를 총괄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입법 성과를 속도감 있게 내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또 "올해는 지방선거를 실시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님의 당 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보좌하며 제22대 총선 압승을 이끈 경험이 있다. 총선 승리를 설계한 겹증된 실력으로 수도권과 호남, 충청, 강원, 제주 그리고 영남까지 민주당 깃발을 당당하게 풋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김영목기자

경범훈 전북선관위 신임 사무처장 취임

중앙선관위 선거2국장 역임
여조심의위 사무국장 등 거쳐



교육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한편 전북선
관위는 2026년
1월 1일자로
경범훈 사무처
장 이외에 6급
이상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처장에 경범훈(2급) 이사
관이 취임했다.

1월 1일자로 취임한 신임 경범훈
사무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
거2국장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 사무국장, 선거연수원 직무

안호영 “용인 반도체 산단 윤석열 정부의 출작”

김동연 경기지사·경상추진 주장에
“수도권 이기주의 전형” 직격



안"이라며 "지금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송전탑 갈등, 전력망 붕괴 위기, 이른바 '에너지 내란'은 전력 대책 없이 수도권에 산업

을 몰아준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구조적 위기를 외면한 채 "정상 추진"만을 외치는 것은 국가 문제를 경기도 문제로 축소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용인반도체 산단을 주장하는 김동연 경기지사를 직격했다.

안 의원은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산업단지를 고수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와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반박했다.

그는 "삼성전자 부지가 포함된 용인 반도체 2단계 국가산단은 윤석열 정부가 전력 대책 없이 밀어붙인 명백한 죄작이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박지원, 김병기 제명 촉구···“당이 결단해야”

자진탈당 거부에 “선당후사 아냐”
김병기 “제명대도 탈당 안 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자진탈당 요구에 반발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선당후사가 아니라 김병기 의원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당이 결정할 때"라면서 제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티뷰'에 '선당후사 차원에서 지진 탈당을 촉구했던 김병기 의원이 탈당을 거부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제가 당을 나가면 정치를 더 할 이유가 없다"고 거듭 반발했다.

/서울=김영목기자



강력한 리얼탄산 100%

이 맛이 청정라거다!

청정라거-테라
TERRA
FROM AGM



2026년 '전주함께라면' 고도화 운영 추진

시민 참여는 살리고, 고립가구 지원은 더 촘촘하게!

전주시가 2026년 더욱 촘촘한 고립가구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고립·은둔 가구 발굴과 사례 관리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

이다. 이와 관련 '전주함께라면' 사업은 '누구나 놓고, 누구나 먹고 가는 공유공간'으로 복지위기에 놓인 가구를 촘촘하게 발굴·지원하는 전주형 복지사업이다.

특정으로는 고립·은둔 가구와 위기가구 등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 누구나 부담 없이 한 끼 식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상담 통한 지원이 주요 내용

이다. '전주함께라면'이 시작된 이후 복지서비스로 연계되면서 시민 참여 확대와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동 행정복지센터와의 협력을 확대해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민·관 자원 연계가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사회복지관 사례 관리 인력 및 통합사례관리 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주거·돌봄·정신건강·일상 회복 등 가구별 욕구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 거점으로 역할을 확장하게 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의회 '2026년 의정활동' 시작

전주시의회는 새해를 맞아 2일 신년인사회를 열고 2026년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남관우 의장을 비롯한 35명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의원 윤리강령 낭독, 신년사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의원들은 행사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방향과 각오를 공유하고 시민의 대변인자 지역 발전의 선도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어진 전주군경묘지 참배에서는 현화와 분향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며 지역의 평안과 시민의 안전을 기원했다.

/정소민 기자

남관우 의장은 "새해에도 전주시의회는 현장 속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변하며,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며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책임 있는 경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달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최하고, 부서별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올해는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 등 총 10회의 의사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책의 도시 "전주시 도서관" 지역민생활밀착형 전환 '각광'

전주시 도서관, 특색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전주시 공공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전환 및 신규 도서관 확충 등 책의 도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책의 도시 전주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신규도서관 5곳 확충과 3개 복합문화공간 전환을 추진하는 등 도서관 혁신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특히 도서관 혁신에서 여행자들의 쉼터인 한옥마을도서관과 동문현책도서관은 특성화 작은도서관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전주가 가진 고유의 테마를 책문화공간과 엮어 방문객에게 독특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전주혁신도시복합문화센터는 어린이·청소년·성인 등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문화프로그램 등이 운영되며 어린이·청소년 창작 프로그램과 유아 및 초등학교 연계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전주만의 선도적인 도서관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방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총 1372개 기관(2만 1729명)에서 전주도서관 시설과 디자인

운영프로그램 등 선진 도서관 시스템 사례를 배우기 위해 전주를 찾았다.

전주지역 최초 영어 특화도서관 신도서관은 △영어 독서 수준 진단 프로그램 △도입 △원어민과 함께 영자신문읽기

△영어 책놀이 등 다양한 영어 학습 접근 성과 능력 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완산도서관은 '자작자작 책 공작소'에 입주작가 집필실과 강의실, 출판체험실 등이 조성됐으며, 입주작가 집필실에는 전문작가와 시민작가 22명이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서 지난 6월 개관한 아중호수도서관은 '책과 음악이 흐르는 길'을 테마

로 한 101미터 길이의 음악 특화도서관으로, 호수 경관과 고품질 청음 인프라를 결합한 음악 특화 프로그램과 음악 주제 큐레이션을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독서와 문화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 및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건지도서관과 협동도서관 등 2개 공공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건지도서관은 현재 토지 매입과 증축·리모델링 설계 용역이 완료된 상태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및 창의 학습 공간이 대폭 확대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日 가나자와시 제 스포츠 교류 통해 우호 협력 다져

가나자와시 유도협회 선수단 방문
합동훈련문화체험 진행

전주시가 국제 자매도시인 일본 가나자와시와 활발한 국제 스포츠 교류를 통해 우호 협력을 다져나가고 있다.

시는 국제 자매도시인 일본 가나자와시 유도협회 선수단이 5일 전주시청을 방문해 우법기 전주시장을 접견하고, 무라야마 다카시 가나자와 시장 친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우법기 전주시장과 타이 토모아키 가나자와시 유도협회장은 20년 이상 이어져 온 두 도시간 우호와 화

합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했다.

가나자와시 유도협회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전주를 찾았고, 전주시 유도회와의 합동훈련 및 문화 체험 등 다양한 국제 스포츠 교류 행사를 전개했다.

이번 전주 방문에는 타이 토모아키 협회장을 비롯한 가나자와시 유도협회 회장단과 지도자, 선수 등 유도인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유도라는 스포츠를 매개로 양 도시 간 우호 증진과 청소년 교류 확대를 도모했다.

구체적으로 가나자와시 유도협회는 지난 3일 오후 입국해 지난 4일과 5일 이를

간 전주시 유도회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양 국 유도 지도자 및 선수단 간 기술 교류와 간담회 등도 진행됐다.

방문단은 또 전주한옥마을 등 전주 지역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등 체육 교류뿐 아니라 문화관광의 상호 이해를 넓히는 시간도 가졌다.

이에 앞서 전주시 유도회와 가나자와시 유도협회는 지난 2006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상호 양 도시를 방문해 지속적으로 합동훈련 및 친선 교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가나자와시 유도협회의 전주 방

문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중단된 상호 교류가 재개된 것으로, 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도시 유도 단체간 국제 스포츠 교류가 다시 정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법기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두 도시 사이에 이어져 온 유도를 통한 교류가 어느새 19년을 맞이했으며, 이는 지속적인 교류와 더불어 상호 노력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한일의 두 도시 간 미래 지향적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2월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부장, 과장, 계장, 직원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개최했다.

전북경찰청 '2026년 병오년 시무식'

도민 안전한 일상 위한 힘찬 출발!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2월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부장, 과장, 계장, 직원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은 순직경찰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고 넋을 기리고자 전북경찰청 소속 순직경찰 115명을 참배로 시작해 국민의례, 묵념, 청장 신년인사, 참석자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직원 간 신년 약수를 하며 새해 덕담을 나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병오년(丙午年)

/정소민 기자

'2026년 전주 판소리 완창 무대' 소리꾼 모집

'직벽기'·'홍부기'·'심청기'·'춘향기'
'수궁가' 소리꾼 각각 1인 모집

소리의 고장 대한민국 대표 전주시가 2026년에도 판소리 완창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26년 전주 판소리

완창 무대' 소리꾼을 공개 모집한다.

전주시 '2026년 전주 판소리 완창 무대'는 △직벽기 △홍부기 △심청기 △춘향기 △수궁가 등 각각의 소리꾼 1인이

2026년에도 판소리 완창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26년 전주 판소리

참가 신청은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 3일간 전자우편(gkdm231@korea.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신청 시 △지원서 △최근 5년간의 활동 실적 △20분 이내의 판소리 음원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탭을 참고하면 된다.

선정 이후 '2026년 판소리 완창 무대'는 오는 3월 14일부터 4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우진문화공간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오는 16일까지 공개 모집

전주시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오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는 6세부터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이 취미와 여가, 자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전주시 소재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기관에 대해 서류·시설 확인,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선정된 기관은 오는 3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2년 1개월 동안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2026년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 본격 시동

"62개 컨소시엄 해외시장 공략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
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 중

기부는 2026년 총 62개 중소기업 수출컨
소시엄(이하 수출컨소시엄)을 구성, 해외
시장 진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출컨소시엄은 품목별 또는 시장별로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이 컨소시
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전시회·상담회 등
현지 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

벌 무역환경이 불확실해지는 점을 감안

하여, 중소기업이 수출국과 및 수출품목
다변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전년도 대비 39억원을 증액(24.5%)했다.

수출기업들의 시급한 상황을 감안하여
중기부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2026년 수출컨소시엄 모집을 공고
했으며, 접수된 199개 컨소시엄 중 현지

시장별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62개를 선정했다.

선정시에는 신청 수요와 함께 품목별

장) 균형을 고려했다. 품목별로는 뷰티와

패션 등 소비재* 분야가 46.8%, 철강·기
계금속 및 전기 등 산업재 분야가 38.7%
이다.

특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 아
랍에미리트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 공략
을 위한 두바이 의료기기 컨소시엄 등 총
11개(17.7%)가 선정됐다.

수출컨소시엄별로 참여 중소기업 모집
을 실시하며, 컨소시엄별 정보 확인과 참
여 신청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누리
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컨소시엄 구성이 완료되면 현지 시

장길환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 공식 일정 시작

“지역밀착형 현장경영” 강조…취임식 생략 지역 기업 방문·소통

NH농협은행 장길환 전북본부장은 5일 취임식을 생략하고 기업 현장방문을 공식 일정으로 시작했다.

장 본부장은 첫 현장경영에 나서며 지역 기업과 영업점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지역 금융 현안

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장길환 전북본부장은 도내 농식품 수 생산기업인 농협회사법인(주)한우물(대표 최정운)을 방문해 생산 공정과 제품을 살펴봤다.

이어 기업의 사업계획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여신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1971년 장수에서 태어난 장길환 전북본부장은 2020년 중화산동지점장,

2021년 장수군지부장, 2024년 여신기획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여신기획부장 재임 시절에는 NH농협은행 전체의 여신 포트폴리오를 설계와 금리 정책 운영을 총괄하며 ‘기업금융 전문가’, ‘지역금융 해결사’로 불리는 등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길환 본부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에 맞춰 기업의 창업부터 성장·성숙기에 이르기까

지 단계별 맞춤형 자금 지원이 가능한 ‘생애주기 금융 솔루션’을 도입해 지역 기업과의 동반성장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며, “기업여신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통합 컨설팅이 가능한 RM 인재를 육성해 전북 기업금융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 한편, 전북 특화 산업과 미래 먹거리 분야의 우량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흔들리지 않는 지역 금융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촌진흥청 ‘한우 보증씨수소’ 16두 선발

도체증·등심단면적·근내 지방도 유전능력 향상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가축개량 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 한우 개량을 이끌 보증씨수소 16마리를 새로 선발했다.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가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선발한 보증씨수소 유전능력은 상반기 선발 개체보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도체증은 7.36kg 증가했고, 등심 단면적은 1.05cm 넓었으며, 등지방도께는 0.6mm 얕았다. 근내지방도(마블링) 역시 0.11점 높은 수준을 보였다.

도체증은 KPN1730, KPN1736, KPN1734가 우수했고, 등심단면적은 KPN1723, KPN1730, KPN1716이 넓었다.

등지방도께는 KPN1723, KPN1740,

KPN1741이 얕았으며, 근내지방도는

KPN1716, KPN1736, KPN115의 점수가 높았다.

2025년 하반기 선발 보증씨수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 → 축산소식 → 공지사항)에서 2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씨수소 정액은 2월부터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 평과과 박병호 과장은 “이번에 선발한 보증씨수소와 농가 보유 암소의 유전능력 및 근교계수를 고려한 계획교배로 농가 한우 개량 효율을 높이길 바란다”



농촌진흥청은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 한우 개량을 이끌 보증씨수소 16마리를 새로 선발했다.

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국민연금공단 “모두가 누리는 연금” 만들겠다!”

‘2026년 시무식’ 기금수익률 제고 사회적 책임 강조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일 ‘2026년 시무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김성주 이사장과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부 신임 부서장 임명장 수여, 이사장 신년사, 신년하례 순으로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임직원의 혁신적인 노력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다.

그는 “18년만에 연금개혁을 이뤘고, 1126만 명이 연금수급권을 확보했으

며 매월 742만명 연금수급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는 등 공단이 국민 노후 보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역대 최대 기금운용 수익률 15%를 기록했던 2024년에 이어 20% 안팎의 높은 수익률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2026년을 ‘모두

가 누리는 연금’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해로 규정하며 임직원에게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실현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와 책임투자 행위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인공지능 대전환 선도 및 공공 기관의 사회적 역할 강화 등 네 가지 과제를 당부했다.

특히 보험료율 변동 등 연금개혁으로 달라지는 내용을 국민께 세심하게 안내하고, 공단의 활동이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청년들을 위한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등 정부 국정과제 입법 추진과 다층 연금 체계 확립을 통한 구조개혁에도 나서야 한다고 뜻을 전했다.

기금운용 분야에서는 통합 포트폴리오(Reference Portfolio) 운용체계를 확대해 투자다변화를 촉진하고, 해외 연기금 수준으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한편, 유니버설 오너(Universal Owner)의 지위에 걸맞게 투자 전 과정에 이에스지(ESG) 요소를 반영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시즌 2’로 업그레이드와 수탁자 책임 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일 ‘2026년 시무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본부 신임 부서장 임명장 수여, 이사장 신년사, 신년하례 순으로 진행됐다.

동 내실화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치매안심 공공신탁 시범사업’ 및 ‘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서비스’를 확대해 투자다변화를 촉진하고, 해외 연기금 수준으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한편, 유니버설 오너(Universal Owner)의 지위에 걸맞게 투자 전 과정에 이에스지(ESG) 요소를 반영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시즌 2’로 업그레이드와 수탁자 책임 활

최고의 인공지능 대표기관으로 거듭나고, 지역사회와 상생과 협력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항상 국민과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하며, 국민께 새해 인사를 전했다.

/정혜민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병오년 신년인사회’

“생산체계 정상화를 목표로 문제 해결에 온 힘 쏟겠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는 5일 2026년 병오년 새해의 인사와 복을 나누고자 원로임원, 도회 운영위원·감사, 지역별·업종별 협의회 임원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근홍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초래한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전문건설업계는 여전히 힘든 상황에 처해있지만, 전문건설인들의 자력으로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

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2026년, 건설산업은 여전히 도전과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시장 여건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임 회장은 또 “올 한해 생산체계 정상화를 목표로 건설산업의 근본적·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 회원사의 권리 보호와 전문건설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이야기하고,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해 역동적으로 전진하며 도전하는 마음 가짐으로 전문건설업계의 도약과 성장의 힘을 모으자”며 새해 각오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5일 원로임원, 도회 운영위원·감사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다졌다.

/정혜민 기자

전북대병원 “최고 수준 의료 역량” 입증

보건복지부 ‘2025년 의료질평가’서 1등급

보건복지부 ‘2025년 의료질평가’에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전체 영역 ‘1등급’을 받았다.

의료 질 평가는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1등급 의료기관은 ‘의료질평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양종철 병원장은 “이번 의료질평가 결과는 환자 중심의 진료환경 조성, 필수의료 수행과 지역의료 전달체계 지원, 교육·연구 기능의 균형적 수행을 통해 의료 질 전반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성과를 입증하는 것이다.

1등급 의료기관에는 ‘의료질평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양종철 병원장은 “이번 의료질평가가 결과는 환자 안전과 교육, 연구 등 병원의 기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구성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의료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지역사회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중기부 ‘26년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 본격화

27일까지 유형별 순차 공모

‘26년 창업패키지는 딥테크 특화형, 일반형, 투자연계형으로 유형을 세분화하고, 업력뿐 아니라 산업 특성이나 투자단계 등을 고려해 보다 세심하게 설계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고하는 딥테크 특화형을 시작으로 일반형, 투자연계형 등을 순차적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또 ‘26년 창업패키지는 지역 균형발전 실현 및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우대 정책도 도입했다.

비수도권 창업기업은 지역발전 정도를 기준으로 지역유형에 따라 민간 자부담률을 차등화해 정부지원 비율을 높이고 기업의 매칭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1월 27일 16시까지 가능하며, 신청접수 이후에는 서류·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은행 제14대 박준원 은행장 취임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준원)은 지난 2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제14대 박준원 은행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날 취임식에서 박준원 은행장은 취임사를 통해 “JB금융그룹의 모기업 이자 저력 있는 전북은행의 책임자로 도전의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영광스럽고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회사의 인적자본, 문화자본, 시스템 자본을 기반으로 집단지성을 통해 전략을 도출하고 빠른 실행으로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 박 은행장은 ‘자산포트폴리오의 고도화’, ‘리스크관리의 전략적 혁신’, ‘디지털·AI 경쟁력 혁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맞춤형 채널 및 인력 전략을 통한 경영 효율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 ‘조직문화의 근본적인 혁

신’ 등 7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며 지역사회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지역을 대표하는 은행으로서 그 위상을 견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박준원 은행장은 “전북은행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놀라운 저력과 혁신을 발휘해 위기를 극복했고, 더 견고한 성장을 이뤄냈다”며 “앞으로 맞이할 현실이 과거보다 훨씬 냉정하고 엄혹할 것이지만, 사업구조와 조직을 혁신하고 변화를 이뤄낸 그간의 트렌스포메이션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은행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 모두가 디지털·AI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혁신적인 채널 및 인력 운용과 조직문화 혁신 등을 통해 전북은행의 새로운 대전환을 이뤄내자”고 당부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교육청 “미디어시민성 강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자료 ‘미디어윤리’ 내년 3월까지 배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미디어윤리 교육을 강화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미디어시민성 강화를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인 ‘미디어윤리’를 제작했다고 5일 밝혔다.

미디어시민성은 미디어 환경에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사회적 소통과 참여를 실천하는 시민의 역량을 의미한다.

미디어윤리는 △생성형 AI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비판적 미디어 읽기 △디지털 시민의 책임 △필터 버블 타리기 등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내용을 연계해 배움의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초등 7차시, 중학교 8차시, 고등학교

10차시로 구성된 이 교육 자료는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실천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전북교육청은 이번에 제작한 자료를 오는 3월까지 도내 각급 학교에 배포해 자라나는 학생들이 사회적 소통과 책임을 다하며 비판적 사고 역량을 갖 실천하는 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초·중학교 120개 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디어리터

리시교육을 하는 등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미디어 윤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정보 과잉과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디지털 공간에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하며 비판적 사고 역량을 갖 추기를 희망한다”며 “학생들의 미디어 시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 했다.

/최성민 기자

수소에너지고-한솔케미칼, 혁신적 취업 모델 구축

채용 후보자 장학금 지원 실제 채용 시스템 제시

교육부 지정 제2기 협약형 특성화고 인 수소에너지고등학교가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혁신적인 직업교육 모델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를 학교 교육과정에 직접 녹여내 학생들의 지역 정주를 이끄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말 수소에너지고 시청각실에서는 한솔케미칼 전주공장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한 ‘채용 후보자 선발 제도 설명회’가 개최됐다. 설명회는 한솔케미칼의 실제 채용 수요를 학교 커리큘럼과 일치시키는 ‘취업 연계형 교육 모델’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자리였다.

한솔케미칼이 제시한 제도는 ‘채용 전제

형 장학생’이라는 파격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 우선 우수한 역량을 갖춘 학생 6명을 채용 후보자로 선발해 재학 기간 동안 매년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연계 교육을 제공한다. 이후 졸업 무렵 최종 2명을 선발해 채용을 확정 짓는 단계형 시스템이다.

특히 한솔케미칼은 선발 과정에서 성적과 같은 정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근속의지, 품행, 성장 가능성 등 정성적인 요소를 비중 있게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학교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생들은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 태도와 역량을 재학 중에 미리 준비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밀착 협력은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의 기고 역할과 전주고용노동자청 박종관 근로감독관, 완주군청 유원옥 산업 경제국장 등 관계 기관의 정책적 뒷받침

이 더해진 결과다.



각각 2명이 최종 합격하는 쾌거를 거둔 바 있다. 송현진 교장은 “한솔케미칼과의 성공적인 협력을 발판 삼아 지역 내 다양한 우수 기업으로 취업 연계 모델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는 안정적인 진로를, 지역 산업체에는 맞춤형 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앞서 진행된 협약 기업 LS엔트론과 일진 하이솔루스의 채용 전형에서 졸업예정자

/최성민 기자

전북도체육회, 2026년 키워드 ‘겸손’…시무식 열어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가 2026년 키워드를 ‘겸손’으로 선정, 더 낮은 자세로 올곧은 체육행정서비스를 펼친다.

지난 2일 도체육회는 시무식 및 월례회

의를 열고 ‘겸손과 당당’을 강조하며 전북 체육 발전을 위해 올 한해도 더욱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겸손은 도체육회의 변화와 혁신, 창의에 이어지는 연속선상에 위치한다.

당당하지만 겸손한 행정서비스를 펼쳐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학교체육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도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신년사를 통

해 “체육인들과 도민들을 위한 질 높은 체육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체육회의 존재 이유다”며 “우리가 겸손하면 상대방도 우리를 존중해준다”고 말했다.

도체육회는 전주 하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쉼없이 달려나가기로 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우리는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뤘지만

결실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며 “전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자”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교육청, 예비중학생 안정적 적응 돋는다

초·중 전환기 교육 운영

활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며, 진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설렘과 자신감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많이 다를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선생님께서 하나 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불안이 많이 줄었다”며 “중학교에 가서 실천하고 싶은 나만의 목표를 세운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소감을 밝혔다.

채선영 교육장은 “학교급 전환기는 학생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이번 전환기 교육이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중학교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새로운 시작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현대모터스FC ‘최고 윙어’ 김승섭 영입

전북현대모터스FC(단장 이도현)가 2026시즌을 향한 선수단 보강의 첫 신호탄으로 제주SKFC의 공격수 김승섭(29)을 영입, 측면을 강화했다.

김승섭은 단단한 체격 조건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겸비한 윙어로, 좌우 측면은 물론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소화가 가능한 멀티 자원이다.

2018년 대전 하나 시티즌에서 데뷔한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2023년 제주로 이적해 K리그1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증명했다.

특히 김승섭의 진가는 군 복무 시절인 2024~2025년 김천상무에서 발휘됐다.

당시 지휘봉을 잡고 있던 정정용 감독 지도하에 기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리그 최고 수준의 윙어로 거듭났다.

2025시즌에는 김천에서만 7골 3도움을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를 경신했고, 전역 후 제주로 돌아가 팀의 1부 리그 잔류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득점포를 가동하며 ‘해결사’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김승섭의 가장 큰 장점은 지치지 않는 체력과 수비 기량 능력이다.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에 능하며, 윙백까지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수비력을 갖추고 있어 정정용 감독의 전술적 유연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교한 킥력을 바탕으로 한 슈팅과 크로스 능력 역시 전북의 공격 루트를 다양화할 핵심 카드가 될 전망이다.

챔피언의 유니폼을 입게 된 김승섭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구단인 전북현대에 입단하게 돼 영광이다. 특히 저를 믿고 다시 불러주신 정정용 감독님과 재회하게 돼 설렌다”며, “2026년 전북현대가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정상을 지킬 수 있도록 경기장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메디컬 테스트 등 입단 절차를 모두 마친 김승섭은 스페인 전지훈련을 떠나 기존 선수들과 훈련을 맞출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전북 건설인과 함께하는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회장 소재철

“안전한 건설문화, 함께하는 행복동행”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제28대 회장단 및 제7대 대표회원”

회장 소재철	준금형	운영위원	김병학	운영위원	유성희	대표회원	강병준	대표회원	박세진	대표회원	윤정호	대표회원	전양재
직전회장 윤방섭	윤리위원	강신길	운영위원	김성율	운영위원	윤식	대표회원	김경진	대표회원	박정순	대표회원	정규종	
감사 윤선학	윤리위원	김만열	운영위원	김영우	운영위원	윤일남	대표회원	김근태	대표회원	박학희	대표회원	이도영	대표회원
부회장 박종원	윤리위원	김양희	운영위원	김용태	운영위원	이민규	대표회원	김덕수	대표회원	서문명숙	대표회원	이병열	대표회원
부회장 정준수	윤리위원	김영랑	운영위원	김종원	운영위원	이용호	대표회원	김미정	대표회원	서오성	대표회원	이상훈	조희창
부회장 김재호	윤리위원	나준균	운영위원	김철빈	운영위원	임재훈	대표회원	김성	대표회원	손영배	대표회원	이용만	지명철
원로회원 이호석	윤리위원	라규환	운영위원	김형주	운영위원	장용준	대표회원	김용	대표회원	송수호	대표회원	이윤범	진승원
원로회원 김승희	윤리위원	배문식	운영위원	라현연	운영위원	제승식	대표회원	김종원	대표회원	신상업	대표회원	이정규	대표회원
원로회원 이정기	윤리위원	윤리위원	양선기	운영위원	박영자	운영위원	대표회원	김준현	대표회원	신현용	대표회원	이정근	최기수
원로회원 꽈병도	윤리위원	김승수	운영위원	이성모	운영위원	최용호	대표회원	김지혜	대표회원	안대순	대표회원	이정택	최종욱
원로회원 조병우	윤리위원	이재선	운영위원	소만호	운영위원	한상우	대표회원	김진곤	대표회원	오은숙	대표회원	이해훈	대표회원
원로회원 이공희	윤리위원	장기현	운영위원	신전만	운영위원	한웅진	대표회원	김철상	대표회원	유명숙	대표회원	이현국	최태립
원로회원 박형식	윤리위원	전주형	운영위원	안장환	운영위원	황호영	대표회원	박강자	대표회원	유병수	대표회원	이현우	대표회원
원로회원 국종훈	윤리위원	최도성	운영위원	유득한	운영위원		대표회원		대표회원	윤영수	대표회원	전욱	(기준성명가나다순)

CAK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TEL : (063)288-3881-2 FAX : (063)285-5290

익산시, 8~12일까지 '익산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익산시가 오는 8~12일 '2026년 익산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27명을 모집한다. 익산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참여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해 이후 민간 일자리 취업에 도움을 주는 익산시 대표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시민이다. 올해 22개 부서, 26개 사업장에서 총 27명을 선발한다.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SNS 콘텐츠 제작(홍보담당관) △청년 취·창업 전문가(청년일자리과) △학예 전문 인력(왕도역사관·보석박물관) 등 민간 취업과 연계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참여자로 선발되면 오는 2월부터 10개월간 근무하며, 급여는 2026년 익산시 생활 임금인 시급 1만 740원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참여자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익산 청년시청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soonjin1512@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 또는 익산청년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산림청 직접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57명 채용

정읍시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림 재난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시는 '2026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산림재난대응단과 공공 산림가꾸기 등 3개 분야에서 활동할 기간제 근로자 57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산림재난대응단 50명 △공공산림가꾸기 5명 △숲생태관리원 2명이다.

특히 이번 채용에서 눈여겨볼 점은 산림 재난 대응 체계의 통합이다. 시는 그동안 산사태·현장 예방단,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등 시기별로 따로 운영하던 인력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해 선발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7일까지 정읍시청 산림녹지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을 위해 서류 심사뿐만 아니라 체력 검정과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가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역의 실업난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무엇보다 우리 시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아끼는 마음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지역 상권 살리기 일환 '우리동네 소비하기' 캠페인 추진

군산시가 2026년 병오년을 맞아 자영업자들을 응원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우리동네 소비하기' 캠페인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온라인 중심의 소비 확산으로 지역 상권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동네 가게를 이용하는 작은 선택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큰 힘이 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군산 경제의 근간으로, 시민들의 소비가 지역 안에서 순환될 때 일자리 유지와 골목상권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우리 동네 가게에서의 소비는 단순한 구매를 넘어, 지역 공동체를 지키고 이웃과 상생하는 의미 있는 실천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현원 일자리경제과장은 "온라인 소비의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하루 한 번 우리 동네 가게를 찾는 실천이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된다"며 "각각도로 캠페인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도 군산 상권 살리기에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이차전지 인재 양성 본격화

이라공고마이스터고
지정추진...미원상사(주)
(주)한솔케미칼 등 동참

익산시가 학교, 기업과 손잡고 이차전지 산업을 이끌 미래 기술 인재 양성에 나선다.

익산시는 5일 이리공업고등학교에서 '영 마이스터 육성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리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등학교 전환 추진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산업에 특화된 실무형 기술 명장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시와 이리공업고등학교를 비롯해 국내 유수의 이차전지 관련 기업인 롯데에너지미터리얼즈㈜와 미원상사(주), (주)한솔케미칼이 참여하며, 협약에 따라 교육 지원 공유와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인 인재 양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롯데에너지미터리얼즈㈜와 미원상사(주), (주)한솔케미칼은 최상위 협력 기업으로 참여해 교육과정 개발에 직접 나선다. 기업 전문가들이 산업 현장의 직무를 분석해 실무 중심 교육을 지원하고, 학생 현장 실습과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함께 추진한다.

미원상사(주)는 이차전지용 전해액 침가제와 양극재 비인더 등 배터리 성능과 안정성을 좌우하는 특수 화학 소재를 생산



하는 정밀화학기업으로, 익산 사업장을 중심으로 소재 국산화를 이끄는 기술 선도 기업이다.

(주)한솔케미칼은 실리콘 음극재 양산과 이차전지 바인더 국산화 등 이차전지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익산 공장을 중심으로 이차전지용 테이프, 전해액, 첨가제, CNT 분산제 등 소재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리공업고등학교가 이차전지 산업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도약하고, 지역 학생들이 산업과 경제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입영 청년 지원금 '20만원'으로 확대

기존 10만원서 대폭 인상
1월 입대자부터 적용

정읍시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지역 청년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영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인상 했다.

이번 조치는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입대 시기에는 교통비와 여비, 생활 준비 비용 등 각종 지출이 한꺼번에 발생하지만, 기존 지원금으로는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최근의 물가 상승과 청년들의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을 두 배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사람 중, 입영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청년이다. 이는 단순히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를 방지하고, 지역에 실제 생활 기반을 둔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다.

특히 이번 증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영자라면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제도 시행 전 기준에 따라 10만원을 먼저 지급받은 경

우라도, 시는 최종 기준에 맞춰 차액인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모든 대상자가 동일하게 20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입영지원금 신청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입영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접수 가능하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입영지원금 증액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지역사회가 함께 응원하고 책임임을 나눈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수제 창작 분야 창업 지원 나선다

20일까지 2026년 군산
메이드마켓 입주자 모집

군산시가 수제 창작 분야 청년창업 가의 시장 진입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메이드마켓에 입주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군산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부터 49세 이하의 청년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또는 예비 창

업자이며 모집인원은 6명이다. 모집 분야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아이템을 보유한 패션, 공예, 리사이클링, 리빙 등 수제 창작 전 분야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심사 완료 후 1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은 군산시청 6층 기업지원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창업가에게는 상시 판

매·전시 기능한 창업 공간을 제공해 실제 시장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창업지원금 500만 원과 함께 창업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온·오프라인 판로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운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국정과제 선제 이행 위한 전담조직 신설

복지·에너지·사회적경제
포괄 전략부서로 전환

익산시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본사회 실현'과 '햇빛소득 정책'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행정체계 전면 개편을 통해 향후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발맞추고, 지역 여건에 맞는 실천 전략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기존 부시장 직속 정책개발담당관을 재편해 '기본사회 대응 전담조직'을 출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단순한 행정조직의 조정이 아니라 '복지·에너지·사회적경

제'를 아우르는 미래 전략 전담기구 구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는 일찌감치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사회 기조에 대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적 방향이라 보고, 밟 빠른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섰다.

신설될 조직은 총 '3개 계(팀)'로 구성된다. '미래개발전략제'는 중장기 전략 수립과 국정과제 연계 핵심과제를 발굴하며, '기본사회정책제'는 기본서비 스와 기본소득 등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적경제 제'는 지역 기반의 순환형 경제를 활성화할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시는 이들 조직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가 본격화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준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고 일어섰고,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저력을 바탕으로,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게 변화가 이어져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 길의 맨 앞에서 책임 있게 뛰겠습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구호보다 성과로, 전북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청년이 머무르며, 어르신이 존중받는 전북, 땀 흘린 만큼 보답받는 전북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2026년 새해,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서로를 믿고 손을 맞잡는 순간, 전북의 내일은 분명 더 밝아질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변화가 달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북은 이미 가능성을 증명해 왔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를 불잡

“전북의 내일은 분명 더 밝아집니다”

희망과 도전의 기운이 깃든 2026년 병오년, 붉은말의 해가 밝아옵니다. 새해 맞아 도민 여러분 한 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유난히 버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의 불확실성, 삶의 현장에서 체감한 어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하루하루를 견디듯 살아온 분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버텨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붉은말은 예로부터 역경을 빼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 침체를 딛고 도약하는 에너지를 상징해 왔습니다.

저는 이 병오년이 전북이 다시 힘차게 달려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멈춰 있던 희망이 다시 움직이고, 주저하던 발걸음이 용기로 환경을 전환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전북은 이미 가능성을 증명해 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군산시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이용자 모집

16일까지·총 300가구 선정

군산시가 가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이용자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가사 활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어려운 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 가사 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청소·정리 등 일상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군산에 거주하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중위소득 120% 이하 맞벌이,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임산부 가구 등이다.

시는 총 300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며, 선정된 가정은 월 2회, 5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16일까지



이며, 정부24나 담당 부서 대표 메일 (growupin9@korea.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해도 된다.

시는 총 300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며, 선정된 가정은 월 2회, 5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대응 '총력'

익산시가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한 전면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5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 내 육용종 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자마자 시는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대 기동하고, 살처분·이동통제·예찰 강화 등 전방위 방역 조치에 착수했다.

고창군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선정

봉덕리 고분군 일원 역사생태·놀이 연결 역사문화공간 조성

전북 고창군이 국가유산청이 주관한 공모사업인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해 이 중 6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으며, 전북에서는 고창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고창군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14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이내로 고창 봉덕리 고분군과 인접 유적지를 중심으로 고대·마한 역사문화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고창 봉덕리 고분군 3·4호분과 봉덕 유적 일원의 유물산포지는 마한 중심 세력(모로비리국)의 실체를 입증하는 핵심 군집 유적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당 지역은 마한에서 백제로 이어지는 전환기의 역사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내륙과 해안을 잇는 교류의 흔적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맥락이 비교적 온전히 남아있는 공간이다.



전북 고창군이 국가유산청이 주관한 공모사업인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사진=고창군>

군은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정비로 훼손을 방지하고, 유적 주변 원지형과 경관을 회복하고 탐방 동선을 정비하는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해 봉덕리 고분군 일대를 '역사·생태·놀이'를 연결하는 고창 고대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봉덕리 고분군 등 핵심 유적 보존·보호 △핵심 유적을 연계한 통합 경관 조성 △탐방지원센터 및 놀이랩 조성 등 역사문화 향유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지원

운전자금·특례보증 등 총 100억원 규모 시행

고창군이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사업을 총 10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소상공인 운전자금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등 2가지 금융 지원 제도로 운영된다.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와 경영 여건에 맞춘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운전자금'은 업체당 3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며, 연 5% 이내의 이자를 고창군이 이자보전 한다.

대출 기간은 3년으로, 단기 운전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은 단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업체당 5000만원 이내의 융자가 가능하다.

연 3% 이내의 이자보전을 지원하며, 5년 조건으로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돋는다.

특히, 2025년부터 전북신용보증재단

고창지점 개점에 따라 융자신청 절차가 간소화돼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해졌다. 보다 쉽고 빠르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됐다. 신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고창지점에서 상담 후 즉시 가능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총 1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 지원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경영 안정 기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 지원과 경영 여건 개선을 병행해 지역 소상공인의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10월 초 개최

10월 1~5일 열려 '글로벌 축제' 도약 추진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인 '김제 지평선축제'가 2026년 가을, 지평선을 넘어 더 넓은 세계를 향한 힘찬 도약을 시작한다.

김제시는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를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지난 제27회 축제의 성공을 발판 삼아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축제' 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방문객

참여와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핵심 콘텐츠를 강화하는 동시에, 외국관광객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주 행사장인 벽골제가 가진 역

사성과 상징성을 유지하되, 관광객의 이동 동선을 고려한 테마별 구역화를 통해 외국 방문객의 퍼포먼스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외국인 인비운딩 맞춤 상품을 개발해 외국 방문객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평선축제의 백미인 '벽골제 전설 쌍룡놀이'와 '입석 줄다리기' 등 정체성이 담긴 전통 프로그램은 계

승하면서도,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한 드론 프로그램과 미디어 파사드와 같은 불거리를 강화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화려한 프로그램을 선사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가 지역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는 그 이상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차별화된 기획과 공간 구성을 통해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글로벌 명품 축제를 준비하겠으니 많은 기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 3년 연속 성장

제도 시행 이후 연속 증가 2025년 첫 10억 원 돌파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이 제도 시행 이후 3년 연속 증가하며, 2025년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서었다.

부안군은 2025년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전년보다 30%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나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첫해인 2023년 이후 매년 증가 흐름을 이어온 부안군의 모금 실적은, 2025년에 들어 본격적

인 성장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단기간 성과에 그치지 않고 제도가 점차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 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기부 참여 분위기도 눈에 띄게 확대 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기부 참여 건수와 인원이 모두 크게 늘었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일회성 참여를 넘어 반복 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

군은 이러한 변화가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신뢰 형성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안군은 성과의 배경으로 기부금 사

용처를 명확히 제시하고, 주민과 기부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기금을 운영해온 점을 꼽았다. 환경 보호, 복지 지원, 청년 정책 등 실제 지역 변화로 이어지는 기금사업이 기부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단순히 모금액이 늘어난 것보다, 기부자가 신뢰하고 다시 참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점이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기부자의 선택과 공감이 지역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금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2026년 시무식 개최

시정현안 등 소통

침했다.

또, 정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민선 8기의 마지막 해로, 시민의 민생과 김제의 미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땀과 열정을 쏟겠다"며, "일비충전의 자세로 지평선 너머 새 만금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붉은 말의 기상으로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무식 시작에 앞서 간부 공무원과 김제시의회 의원들이 함께 군경묘지 및 성산공원 충훈탑 참배를 했으며, 시무식 종료 후 정 시장은 시의회와 출입 기자, 공무원 노동조합 등과의 간담 자리 마련해 2026년 시정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한파 대비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 안전점검 실시

부안군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 안전점검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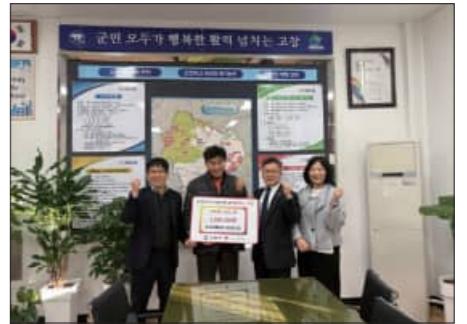
이번 안전점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약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군은 이번 안전점검에서 생활지원사(154명)과 응급관리요원(3명)을 통한 비상연락망 구축 등 안전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가정내 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한파 대설 특보 발효 시 일일 안부확인 및 건강수칙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 아산면 온유카페 대표 유온법씨, 성금 500만원 기탁

2452일로 전년 대비 6.9% 상승했는데

이는 변화하는 영농 환경에 맞춰 수

요가 높은 농기계를 적기에 도입하고

철저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성과는 사업소가 단순한 장비

대여 서비스를 넘어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 부담을 줄이는 농업기계

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

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양녕 기술보급과장은 "앞으로도

저비용·고효율의 생산성 높은 영농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하고 군농업기계화를 앞장서서 이끄는 선도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한결같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 아산면 온유카페 대표 유온법씨, 성금 500만원 기탁

고창군 아산면에서 온유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유온법씨는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아산면 주민행복센터에 500만원을 기탁했다.

유온법 대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나눔 활동을 계속 이어왔다. "작은 성적이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눔에 동참하게 됐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재택 아산면장은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해 모두가 따뜻하고 풍요로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고창=백종규 기자

질 수 있어, 규칙적이고 균형잡인 영

양 관리가 건강 유지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고창군보건소는 간편하게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영양 보충식품과 체

온 보호를 위한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혈압, 혈당 측정 등 기초 건강 확인과

함께 흑한 대비 건강관리법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동절기 동안 수시 건강 모니

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

견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건강 악화를

예방할 계획이다.

유병수 고창군보건소는 "겨울철은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있어 가

장 중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맞춤

형 건강관리와 영양 지원을 통해 지

역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와

면역력 저하는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

되는 문제로, 영양 관리가 건강 유지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고창군보건소는 간편하게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영양 보충식품과 체

온 보호를 위한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혈압, 혈당 측정 등 기초 건강 확인과

함께 흑한 대비 건강관리법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시는 취약계층에게 일회

순창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개관 준비 박차

컨벤션홀·체험·교육 복합공간
발효테마파크 내 3층 규모 조성
친환경 농업 중심지 도약

순창군이 유기농업 확산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인 '유기농산업 복합센터'의 올해 개관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

군은 최근 센터 내 전시물 구성과 공간 인테리어,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용역에 착수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유기농산업 복합센터는 순창읍 백산리 발효테마파크 내에 위치하며, 부지 면적 1만 3,152㎡, 연면적 5,221㎡(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이곳은 단



순창군은 최근 유기농산업 복합센터의 인테리어,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용역에 착수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순창군>

유기농 교육관 등이 들어선다.

이번 전시물 구성 및 인테리어 조성 용역에는 총 12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군은 공간별로 특색 있는 테

마를 부여하고, 방문객의 흥미를 유도 할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와 감각적인 디자인을 접목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시에 진행 중인 관리운영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인력 배치, 수

지 분석, 마케팅 전략 등도 마련한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신규 위탁사업 본격화

32명 신규 임용 현장 배치
수영장마을버스운영기반강화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 지난 2일 신규직원 임용식을 갖고 2026년 신규 위탁사업 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절차에 돌입했다.

공단은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4개 시설(삼례청소년수련관, 봉동근로자 복지관, 완주국민체육센터, 이서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 운영과 고산북부권 공영마을버스 운영의 조기안정화 및 업무분권화를 위해 시무식을 생략

하고 32명의 직원을 신규 임용하여 현장 중심의 업무 배치를 통해 운영 기반강화에 만전을 기했다.

이날 오전 완주군시설관리공단 2층에서 열린 임용식은 △임용장 수여 △청렴 서약서 낭독 △공단 주요 사업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국제드론제전, 산업부 '인증전시회' 자격 획득

AKEI 심사 통과…전시분야 인증
성과 데이터 공개 공신력 강화

남원시는 산업통상부 지정 인증기관인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로부터 전시회 인증제도 심사를 거쳐 '인증전시회'로 선정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전시회는 성과가 객관적

인 데이터로 검증·공개돼 신뢰도를 높

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원시는 이번 인증을 통해 산업통상부 등 관계기관의 전시회 지원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으며, 해

외 네트워크 연계와 국제 교류 확대에

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는 인증전시회로서 확보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참여기업과 관람객 유치 확대에 힘쓰고, 2026년에도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연계해 드론·로봇 분야 전시·컨퍼런스 및 체험 콘텐츠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남원국제드론제전이 전시회 인증으로 공신력과 브랜드 가치가 한층 높아졌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과 기관을 유치하고, 국내·외 교류와 산업 네트워킹 확장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제납자 보조금·관허사업 참여 제한 강화

신청단계서 체납 여부 확인 강화
성실납세 형평성·징수율 제고

순창군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지방보조금과 관허사업 제한을 대폭 강화하며,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성실 납세의 가치를 높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군민이 각종 혜택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이를 위해 각 부서는 물론 면면 단위까지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성실 납세의 가치를 높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군민이 각종 혜택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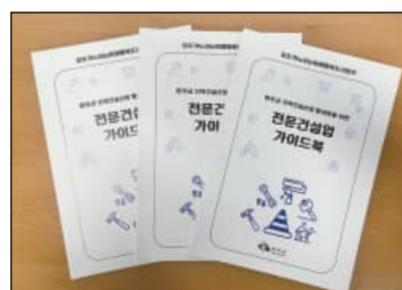
완주군, '2026년 전문건설업 가이드북' 제작 배포

신고제도·실태조사 절차 등 정리
행정처분 체크리스트 등 실무 지원

완주군이 관내 전문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전문건설업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면서, 일부 건설업체의 업무 처리 미흡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며 법적 준수를 강화하고,



령과 각종 신고제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에 공을 들였다"며 "이번 가이드북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법 규 위반 최소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사회복지사협회, '십시오' 온정 보태

완주군에 성금 210여만원 전달

완주군 사회복지사협회(회장 유재현)가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돋기 위한 이웃돕기 성금 210만 2,000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유재현 완주군수를 비롯해 유재현 완주군 사회복지사협회장, 임평화 고문, 조주현·오미숙 운영위원, 최준식 전 회장, 길종관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성금은 협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됐으며,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은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최정학 가나다 대표,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순창 출신 기업인…700만원 기탁

순창군은 5일 (주)가나다의 최정학 대표가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7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에서 계육 도소매 및 제조 전문 기업인 (주)가나다를 운영중인 최정학 대표는 순창 출신 기업인으로서 고향의 발전을 응원하고 지역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기부금을 전달했다.

실제로, 최 대표는 이번 기부 외에도 주변 이웃과 복지시설을 위해 삼계닭을 기부하는 등 평소에도 꾸준한 나눔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했다.

최정학 대표는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고향 순창에 대한 애정이 자리잡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전북형 통합돌봄' 역량 강화…대비 순항

전북대의대 권근상 교수 강의
3월 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지난해 12월 26일 남원시보건소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권근상 교수의 교육을 진행했다.

2025년 11월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전북자치도 지역 실정에 맞는 모델을 확정하기 위해 '전북형 노인 통합돌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을 실시하고 도출된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최종보고서는

권근상 교수는 노인의 노쇠정도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전략을 제시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지·의료서비스 접근방향에 대해 공유해



지난해 12월 26일 남원시보건소는 3월 통합지원법 시행을 대비해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사진=남원시>

료·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방문진

교, 재택간호, 방문요양 및 목욕, 식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교육은 전북형 노인통합돌봄 모형 개발 연구내용과 노쇠 정도에 따른 보건

의료서비스 접근전략을 제시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보건소, 겨울방학 맞아 아동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 보건소(소장 한용재)는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16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아동들의 율비른 성장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꿈자람 건강 Jumping up'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7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비만 예방을 목표로 체성분 측정, 신체활동 프로그램뿐 아니라, 영양·비만, 흡연예방, 음주폐해예방 건강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지난해 실시된 동일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동의 신체활동 증가 및 식습관 개선 효과와, 비만 위험군 아동의 건강위험 인지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아동 비만을 감소와 정서적 자존감 향상 등 다각적인 건강효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아동의 체지방률과 성장 발달 단계를 정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운동·영양·비만 예방을 위한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체성분 측정 결과, 체질량지수(BMI)가 95분위수 이상이거나 하리둘레와 키의 비율이 0.5 이상인 아동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 남원의료원과 연계한 대사증후군 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아동 비만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청소년수련관

2026년 다짐 프로그램 마련

완주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2026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특별 프로그램 '엔딩 but 시작 day'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지난 1년간의 성장을 되돌아보고 스스로의 노력을 격려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연간 활동들은 하이라이트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주식을 공유하고, 각자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활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한 해 동안 방과후아카데미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료증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서로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또래 및 지도자 간 정서적 유대감을 더욱 강화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경험과 변화를 솔직하게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의 성장을 체감했다.

또한 'Hello 2026'을 주제로 한 비전 보드 작성 활동이 이어졌다. 청소년들은 새해의 목표와 핵심 키워드를 직접 정하고,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설계하는 주도적인 시간을 가졌다.

박기완 아동친화과장은 "앞으로도 완주군은 청소년의 자존감과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성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창립동 두부마을

희망나눔 성금 500만원 기탁

순창군 창립동 두부마을(김평순, 김상숙 대표) 최근 순창군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하며 '희망나눔 2026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모자관계인 김평순, 김상숙 대표는 평소에도 꾸준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이어 오며 어려운 이웃을 돋는데 앞장서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김평순, 김상숙 대표는 "추운겨울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기부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장수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장수군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비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진행되며, 장수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군은 총 33명을 선정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대상자에게 1인당 1회에 한해 20만 원 상당의 장수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운전면허 반납 및 인센티브 신청은 주민 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장수 경찰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등 실질적인 안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2026년 병오년 진안군 캐릭터
‘빼망’과 함께 소원 빌어요!

진안군이 2026년 병오년(丙午年) ‘빨간 말의 해’를 맞아 군 대표 캐릭터인 ‘빼망’을 새세워 특별한 새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빼망’에게 소원을 말해 봐라는 주제로 오는 15일까지 진안군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진안군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한 뒤, 이벤트 게시물을 2026년 새해 소원을 댓글로 작성하고, 네이버풀을 통해 인증샷과 참여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진안군은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진안고원행복상품권을 증정한다. 경품 규모는 △3만원권(10명) △2만원권(10명) △1만원권(80명)이며, 당첨 결과는 오는 23일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신흥사불상, 도문화유산 지정 예고

신흥사 대웅전 목조석가 여래삼존·대좌

임실군 관촌면 소재 신흥사(주지 진벽) 대웅전에 봉안된 '목조석가여래삼존 및 대좌'가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5일 밝혔다.

1652년 신흥사 대웅전 건립 당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여래 형식의 본존불과 좌우협사보살로서 미륵불상과 제화갈라보살 등 삼존상으로 구성됐다.

발원문이 발견되지 않아 분명한 조성 시기와 발원자는 알 수 없으나, 1738년 무경집(無竟集), 1730년 운수지(雲水誌)를 통해서 신흥사가 1619년에 조성된 이후 1652년에 대웅전과 여러 목조문화유산이 조성됐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본존불 좌대의 묵서(墨書)를 통해 1743년 개금(改金) 사실, 불사에 참여한 발원자, 제작자, 시주자, 화원(畫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불상의 정방형 상호, 법의 착의법, 옷 주름의 표현 기법 등이 17세기 전반기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당시



임실군 관촌면 소재 신흥사(주지 진벽) 대웅전에 봉안된 '목조석가여래삼존 및 대좌'가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역에서 활약했던 조각승 청허, 현우, 현진, 수연 등이 제작한 불상과 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목조석가여래삼존 및 대좌의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조선 후기 불상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높여 주고 있다.

임실 신흥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 및 대좌는 2025년 12월 26일부터 약 30일간 전북특별자치도 고시를 통해서

지정 예고를 거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지정에 힘입어 2026년 신

흥사 목조문화유산 학술 연구용역을

통해서 대웅전 내 석조지장보살상, 6나

한과 목조석가상, 금강역사상 2기, 행화

등에 대하여 추가 학술 연구와 임실의

불교문화를 새롭게 찾아가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접수

총 16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장수군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2026년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신청을 23일까지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과 주거 안전 확보를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LED 조명 설치, 노후 창호 교체, 난방 보일러 정비 등에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비롯해 벽면 안

전장비 설치, 주방·화장실 개보수 등 주택 내외 전반에 걸친 생활환경 개선이다.

군은 올해 복권기금과 군비를 각각 절반씩 투입해 총 9,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지역 내 저소득층 16가구를 선정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신청 시에는 대상자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이종무 장군 기념사업회, 장수향교서 공식 현판식 개최

조선 초기 대마도 정벌의 영웅이자, 전라도 장수가 낳은 위대한 무관 가문의 기개를 선양하기 위한 ‘이종무 장군 기념사업회’가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종무 장군 기념사업회(회장 신인식)는 2026년 1월 3일 오전 11시, 전북 장수군 장수향교에서 신인식 회장을 비롯한 지역 유림 관계자 및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업회 사무실 개소 및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현판식은 이종무 장군의 출생지가 ‘조선왕조실록’에 전라도 장수(長水) 출신으로 명확히 기록돼 있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찾아 이종무 장군의 역사적 뿐만 아니라 고고학적 가치를 공고히 하고, 장수 이씨 가문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종무 장군은 1419년(세종 1년) 삼군도체찰사로서 대마도 정벌을 진두지휘하며 국방의 기틀을 다진 국난 극복의 상징적 인물이다.

장수향교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지역 유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경건하게 치러졌다. 참석자들은 현관 제막을 통해 장수군이 배출한 위대한 영웅들의 정신을 보존하고 후대에 전수할 것을 함께 다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 옥정호 출렁다리 봉어섬, 3년 만에 176만명 돌파

25년 44만명 방문 24억 매출 성과 1월 1일~2월 28일 동절기 휴장

임실군의 민선 8기 최대 역점사업인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이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명품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옥정호 봉어섬 생태공원을 찾은 관광객은 4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2022년 10월 옥정호 출렁다리 개통 이후 누적 방문객 176만여 명을 기록하며, 개장 3년여 만에 전국적인 인기 관광지로 급부상했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이 ‘대박 관광지’ 성공 사례로 공식 언급되며 대외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눈에 띄었다.

2025년 한 해 봉어섬 생태공원 입장 수 입은 14억원, 생태공원 내 편의시설 판매장 20억원까지 3억원·음식점 1억원 등 24억원의 운영 매출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시작된 반려견 동반 입장 제도에는 1,603팀이 참여해 방

문객들이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차별화 된 관광콘텐츠로 호응을 얻었다.

군은 사계절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관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지난해 봄에는 ‘2025 임실 옥정호 봉어섬축제’를 개최했으며, 가을철에는 국화, 코스모스 등 계절꽃 식재를 통해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

아울러, 2026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옥정호 국사봉에서 열린 해맞이 행사에는 3,500여 명의 방문객이 몰려 장엄

한 첫 일출과 함께 희망과 도약의 새해를 기원하며 천만 관광 임실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편, 군은 한교와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예방을 위해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을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동절기 휴장한다.

휴장 기간 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과 환경 개선을 실시해, 3월 1일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모습으로 재개장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 국사봉 등 임실의 핵심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사계절 머무는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며 “지난해 920만 관광객을 불러 모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반드시 천만 관광 시대를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진안고원몰’ 2025년 매출 30억 달성!

출범 4년 만에 매출 3배 성장 138개 농가 446개 품목 참여

진안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진안고원몰’이 2025년 연 매출 30억원을 달성하며 공공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성공 모델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진안고원몰은 지난 2022년 코로나 19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 농가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개설된 진안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이다.

출범 초기에는 실험적인 시도로 평가

로 확대로 매년 뚜렷한 성장세를 이어 왔다.

연도별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10억 원 △2023년 13억 원 △2024년 25억 원 △2025년 30억 원으로 출범 4년 만에 매출 규모가 3배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진안고원몰에는 138개 농가가 참여해 446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며, 진안군 직영 쇼핑몰을 중심으로 전북 우정청, 앤드마켓 등과의 제휴를 통해 다각적인 온라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규모 농가도 안정적인 온라인 판로에 참여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진안고원몰은 누적 매출 500억 원을 돌파한 ‘진안로컬푸드 직매장’과 함께 진안군 농산물 유통을 이끄는 양대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며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진안군은 앞으로 진안고원몰을 단순한 지역 쇼핑몰을 넘어 전국 단위 공공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참여 농가 확대와 품목 다양화, 공동 브랜드 경쟁력 강화, 데이터 기반 맞춤형 마케팅 고도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노창환 부군수 부임

“K-관광수도 무주발전 위해 뛰겠다” 전해

로서 그간의 경험과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무주군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청의 문턱을 낮춰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하고 동료 공직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 중심의 감동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공직자 모두가 하나로 뭉칠 때 군민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며 “군수님, 동료 여러분과 마음 맞춰 최선을 다하고 가장 먼저 밭으로 뛰겠다”라고 덧붙였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2026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읍면별 주요 소득작목 중심 교육

면 주민복지센터에서 토마토 재배 농기를 대상으로 열리며 이후 신서면(16일, 양파, 면사무소), 장계면(19일, 수박, 면사무소), 장수읍(20일, 사과, 농업기술센터), 천천면(21일, 고추, 면사무소), 계남면(22일, 오이, 면사무소), 번암면(23일, 상추, 면사무소) 순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장수군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군은 교육 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품종 안내와 당면 영농 시책 등이 수록된 교육 자료를 함께 배부할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2026년 원예특작분야 지원 사업 추진

무주군이 2026년



무주 도로관리직·환경관리직 공무직 노조 조합원, 장학금 260만원 기탁

무주군 도로관리직·환경관리직 공무직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260만 원을 기탁했다.

이들은 “2026년 붉은 말의 기상과 열정을 담은 장학금이 무주군 학생들의 미래 꿈을 키우는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환경미화와 도로 관리 현장에서 주민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책임지는 사람들로서 지역사회와 주민 삶에 보탬이 되는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장학금은 조합원들이 한마음 이 돼 모은 성금으로,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무주군 도로관리직·환경관리직 공무직노조 조합원들은 2024년에도 장학금 4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인재 육성에 동참해 왔다.

/무주=최의호 기자



김제 금구면 새마을부녀회, 장학금 100만원 기탁

김제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일 금구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김제 사랑장학재단에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역 발전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졌으며, 평소 지역사회 봉사와 나눔 실천에 앞장서 온 금구면 새마을부녀회의 뜻이 담겼다.

금구면 새마을부녀회 이순희 회장은 “이번 기탁이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집중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미래를 밝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금구면 새마을부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곤 금구면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새마을부녀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따뜻한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울림이 되고, 학생들이 꿈을 키워가는 데 소중한 밀가루를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법무부 2025 우수공무원 임춘덕 전주소년원과장 수상

친화적행정시스템 구축 현장 중심 국가경쟁력 강화



법무부 2025 우수공무원에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임춘덕 교무과장(사진)이 2025.12.31. 선정되며 국무총리 표창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임춘덕(57세) 교무과장은 경남 남해 태생으로 전주 경상대학교를 졸업하고 ‘군산보호관찰소’, ‘전주 보호관찰소’, ‘논산보호관찰소’, ‘광주솔로몬파크(법교육)’ 등에서 여러 활동을 펼쳤다.

그는 2000년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약 25년간의 보호행정 및 소

년보호 분야에 활약하며, 현장 중심 혁신적 행정을 통해 법무행정 질적 도약에 힘써온 인물이다.

특히 법무부 최초 ‘보호관찰 지원 조례’ 제정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연 7천만원 규모 시 보조금 확보하는 등 국가 예산 절감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이끌었다.

임과장은 ‘전자감독’, ‘판결 전조사’, ‘조사서 개선’ 등 법령 제도 개선 과제 6건이 실제 정책에 채택

되어 인권 친화적 행정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임과장의 주요 공로 내용으로는 이해와 공감 등의 생활지도 모델을 정립한 소년원생의 행동 심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수많은 교육 콘텐츠를 제작 공유했다. 이

와 관련 현재 전국 소년보호 행정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 임과장은 21년간 학습 동아리 ‘파워포인트 공유실’을 직접 운영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보호행정 전 분야의 PPT 교육자료 표준화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법무연수원 강사 및 법무부 전문조사관으로 활동하며 조직 역량 강화에도 헌신해 왔다.

그의 활약에는 고위험 소년 대상 ‘써클 멘토링’, ‘지역 기업 및 민간단체와 연계한 장학금’, ‘교육 기자재 지원’, ‘피해자 중심 제도 개선 활동’ 등에 따른 보호행정 실천에서도 빛을 냈다.

임과장의 공로는 제도 혁신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이끌어낸 모범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

임과장은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법무행정을 만들기 위해 현장 실천 중심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완주 이서농협 노동조합, 백미 10kg 100포 기탁

완주군 이서농협 노동조합(지회장 정준영)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280만 원 상당의 백미 10kg 100포를 기탁했다.

이서면은 저달받은 백미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홀몸노인, 장애인,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정준영 이서농협 노동조합 지회장은 “지역 사회와 함께해온 이서농협 노동조합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는 노동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소미례 이서면장은 “매년 지역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이서농협 노동조합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주)티와이엠·(주)한솔홈데코, 익산시에 나무심기 성금 기탁

총 성금 2,000만원 전달

익산시가 녹색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익산시는 5일 (주)티와이엠과 (주)한솔홈데코가 ‘푸른익산 가꾸기 사업’을 위해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새푸른익산 가꾸기 운동본부에 기탁된 후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한 나무 심기에 활용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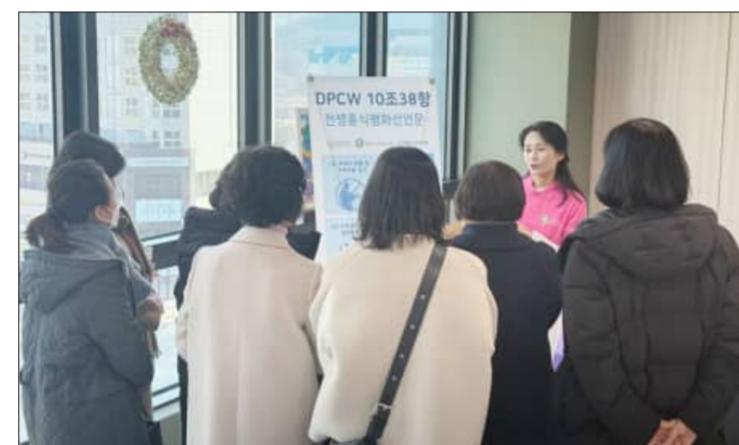
(주)티와이엠과 (주)한솔홈데코는 평소 친환경 경영과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이번 기탁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실천했다.

(주)티와이엠과 (주)한솔홈데코 관계자는 “푸른익산 만들기 사업에 함께 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익

산시의 녹색환경 조성 정책이 시민

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진안군청 자원봉사클럽, 새해맞이 연탄봉사 실시

진안군청 자원봉사클럽은 2026년을 맞이해 힘차게 출발하자는 의미와 한파에 취약한 가구에게 온기를 더하기 위해 지난 3일 새해맞이 연탄봉사를 주진했다.

이번 봉사는 1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독거노인과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4가구에 연탄 1,200장(12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행사장에는 전쟁의 비극을 담은 영상 상영과 함께 ‘평화사랑 그림 그리기 국제대회’ 어린이 수상작

연탄을 지원받은 진안읍 독거노인 어르신은 “봄까지 사용할 연탄이 부족했는데, 뜻밖에 지원을 받아 너무도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클럽 관계자는 “우리의 작은 마음이 모여 필요한 세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매우 뿐만 아니라”며 “앞으로도 관내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봉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군산전통순대국밥협동조합,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기탁

군산시는 군산전통순대국밥협동조합(대표 최선옥)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기탁식에 참석한 최선옥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새해를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합원들과 뜻을 모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협동조합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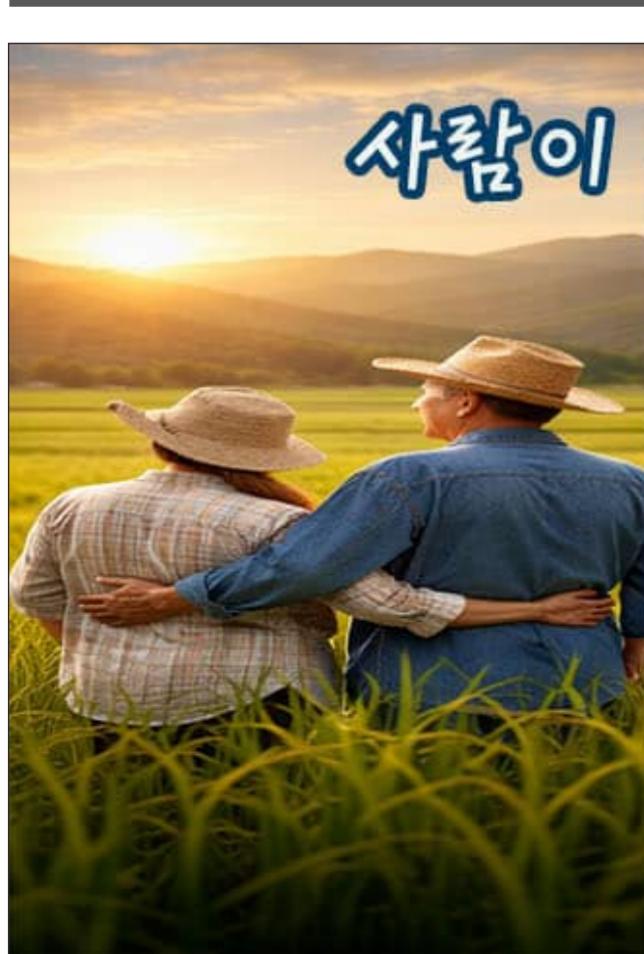
한국전기안전공사 (2026년 1월 1일 자)

□ 1(가)급 이동 (5명) ▲재난안전처장 오치영 ▲전기안전인재개발원장 박지영 ▲전기안전인재개발원 담당 박찬영 ▲경기북부본부장 이인수 ▲강원본부장 김진태
□ 1(나)급 승진이동 (2명) ▲디지털정보처 정보시스템부장 김문필 ▲구미칠곡자사장 김성호

□ 1(나)급 이동 (3명) ▲전기안전인재개발원 담당 김대일 ▲서산태안지사장 이상철 ▲평택안성지사장 박준성

□ 2급 승진이동 (2명) ▲경기본부 기술진단부장 정병현 ▲전북본부 검사부장 진종수

□ 2급 이동 (6명) ▲사업운영처 기술진단부장 조장호 ▲대구경북본부 검사부장 김시중 ▲대구경북본부 기술진단부장 박재일 ▲대구서부지사장 임인수 ▲경남본부 검사부장 정영기 ▲경남본부 기술진단부장 이병열



JBT 전북타임스
공익캠페인

〈一事一言〉



용인 대신 새만금, 그 선택이 국가를 살린다

김관춘
주필

새해 벽두부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다. 논쟁의 출발점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문제 제기였지만, 파장은 산업 입지와에너지 체계,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의 방향까지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과 재래식 언론은 이 사안을 '수도권 산업을 지키기 위한 방어전'으로 축소하며 비수도권을 또다시 희생의 공간으로 전제하는 익숙한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초고압 송전탑 민원과 '남방 한계선'이라는 모욕적인 언어로 분열의 혼란을 겪을 것이다.

용인에 추진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두 곳이다. SK가 추진하는 일반산단과 삼성 중심의 반도체 국가산단이다. 이 두 단지가 필요로 하는 전력은 모두 16GW, 원전 16기 분량에 달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전력 수요의 16%를 넘는 규모다.

문제는 이 막대한 전력을 용인과 수도권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서울의 전력자급률은 10%대, 경기도 역시 60%대에 머물고 있다. 이미 수도권은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전력에 구조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수많은 초고압 송전선이 전국을 가로지를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비효율과 불안을 낸다. 장거리 송전을 전제로 한 계통에서는 사고에 대비해 실제 송전 용량의 일부만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비용은 늘고 안정성은 떨어진다. 그런데도

또다시 원전 16기 분량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겠다는 발상은, 비수도권을 전력 생산지이자 희생지'로 고정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실제로 전남·전북·충남·충북·세종 등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이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여대급 규모의 송전망 건설은 지역 갈등과 환경 훼손을 키우고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또 한 번의 일방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문제 삼기는커녕, 장관의 문제 제기를 공격하며 과연으로 '산업 경쟁력'을 앞세운다. 심지어 용인 이남으로 반도체 공장을 옮기면 인재 확보가 어렵다는 이른바 '남방한계선' 논리까지 등장했다.

이는 비수도권을 교육과 인재가 부족한 공간으로 낙인찍는 발상이다. 비수도권에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외면한 주장이다. 일자리가 가면 인재는 따라간다.

만약 용인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고집한다면, 논리적으로는 그 전력을 생산할 발전소 역시 용인에 들어서야 맞다. 원전이든 LNG든, 그 부담은 지역이 함께 지는 것이다. 공정하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전력 생산의 부담을 비수도권에 떠넘기는 선택을 반복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다. 지금이라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론

한 논쟁을 단순히 '입지변경 여부'나 '정치적 발언 공방'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본질은 대한민국의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이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중 모델에 갇혀 있다는 데 있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안보산업이다.

그런 산업의 입지를 결정하면서 전력 생산 구조와 계통 안정성,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는 전략 부재이자 정책 실패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을 유치할 때 가장 먼저 짜는 것이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물, 그리고 장기적 확장성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구상은 여러모로 시대착오적이다. LNG 발전소를 추가로 짓고 수천 km에 달하는 초고압 송전망을 확충하는 방식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수도권 대공장을 위해 비

수도권에 발전시설과 송전탑을 집중시키는 이중적 정책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사회적 비용이다. 초고압 송전선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불과와 직결된다. 수년간 이어지는 갈등 조정 비용, 행정력 낭비, 사회적 불신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지만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잠식한다.

반도체 산업이 '미래 먹거리'라면 그 토대가 되는 에너지 정책 역시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분명해진다.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잠재력, 산업용지 확장성, 국가 주도의 계획적 개발이라는 조건을 모두 갖춘 드문 공간이다. 단순히 수도권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체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지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을 새만금과 같은 비수도권 거점에 배치하는 것은 지역 배려 차원이 아니라, 국가 효율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합리적 선택이다. 이는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송전망 건설 비용을 줄이며,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현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5국 3특' 구상이 말에서 끝나지 않게 하려면, 반도체라는 국가 핵심 산업부터 입지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수도권에 공장은 몰리고, 비수도권은 전력만 생산해 보내는 구조로는 결코 다국 체제가 될 수 없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문제는 좌고우면할 사안이 아니다.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위해, 그리고 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결단이다. 새만금이라는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전력식민지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첫걸음이다.

사설

크루즈 기항지 새만금, 가능성은 현실로 만들자

새만금 신항이 대한민국 8번째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된 것은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은 뜻깊은 성과다.

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 관문으로서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다.

관광 콘텐츠의 고도화 역시 시급하다.

크루즈 관광은 짧은 체류 시간 안에 높은 만족도를 제공해야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전북의 강점을 살린 테마형 관광 코스, 미식·체험·역사·생태를 결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항만과 나루를 잇는 교통 동선, 다국어 안내 시스템, 전문 관광 인력 양성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

해외 선사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도 중요하다. 동북아 크루즈 시장은 경쟁이 치열한 만큼, 단발성 방문이 아닌 정례 노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포트 세일즈와 펌투어,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중앙 정부와의 협력, 민간 여행사와의 파트너십 역시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새만금 신항은 대규모 국제 행사의 인프라로도 활용 가능성을 넓혀야 한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논의된 크루즈선 숙박 활용 모델은 숙박난 해소와 친환경 운영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새만금의 활용 가치를 항만을 넘어 국가 전략 자산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새만금 신항의 크루즈 기항지 선정은 '가능성의 선언'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와 완성도, 그리고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다. 전북이 이번 기회를 단순한 상장을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의 실질적 도약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지금의 준비와 선택에 달려 있다. 서해권 크루즈 시대의 문을 연 새만금이 대안민국 해양관광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완주 대원사 오층석탑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적건조물, 탑

-지정일 - 2023년 5월 26일

-시대 - 고려시대

-소재지- 원주군 모악산길 246

(구이면, 대원사)

문화재연혁	문화재연혁
<p>문화재연혁</p> <p>분류 - 유적건조물, 탑</p> <p>지정일 - 2023년 5월 26일</p> <p>시대 - 고려시대</p> <p>소재지- 원주군 모악산길 246</p> <p>(구이면, 대원사)</p>	<p>문화재연혁</p> <p>분류 - 유적건조물, 탑</p> <p>지정일 - 2023년 5월 26일</p> <p>시대 - 고려시대</p> <p>소재지- 원주군 모악산길 246</p> <p>(구이면, 대원사)</p>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창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 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강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증평지사 010-8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8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제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원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83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경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오늘의 시

희망은 아름답다 / 정호승

창은 별이 빛날 때만 창이다.

희망은 희망을 가질 때만 희망이다.

창은 길이 보이고 바람이 불 때만 아름답다.

희망은 결코 희망을 잊지 않을 때만 아름답다.

나그네여, 그래도 이 절망과 어둠 속에서

창을 열고 별을 노래하는 슬픈 사람이 있다.

죽음의 산길 타던 나그네여 바다가 있어야만 산은 아름답고

별이 빛나야만 창은 아름답다

희망은 외로움 속의 한 순례자

창은 들의 꽃 바람 부는 대로 피었다 사라지는 한 순례자

시인 악력 : 1950년 경남 하동 출생. 경희대 국어 국문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2년 한국 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석굴암을 오르는 영희'로,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시 '첨성대',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위령제'로 각각

간했다. 제3회 소월시문학상, 제12회 정지용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수필집 '첫눈 오는 날 만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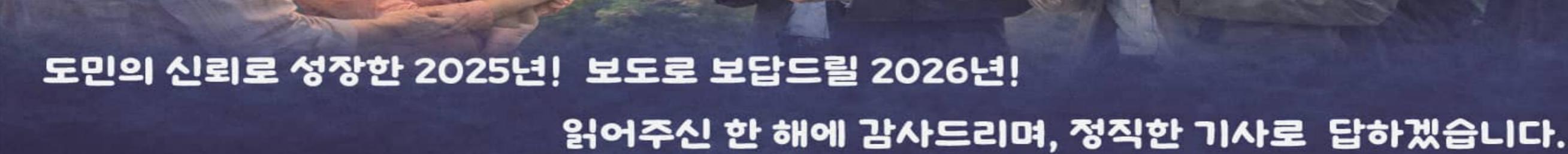
장편소설 '서울에는 바다가 없다' 등이 있다.

JBT 전북타임스
정확한 뉴스 빠른 소식



도민의 신뢰로 성장한 2025년! 보도로 보답드릴 2026년!

읽어주신 한 해에 감사드리며, 정직한 기사로 답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조례안 114건·승인·동의안 54건·건의·결의안 13건 등
총 193건 안건 심의·의결 … 새해 의정 본분 다짐

□ 2025년 정읍시의회 의정 성과

2025년 한 해 동안 정읍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구현을 목표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를 운영하며 조례안 114건, 승인·동의안 54건, 건의·결의안 13건 등 총 19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아울러, 의원 교육 확대 등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의정의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정책 수립과 시민 서비스 향상,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등으로 이어지며, 실질적인 지역 발전과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만재 부의장은 "의원 간 화합과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박일 의장 "시민과 소통하는 책임 있는 의회 운영"



박일 의장은 '시민이 곧 의회의 주인'이라는 신념 아래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책임 있는 의정 운영을 통해 정읍시의회를 이끌어 왔다.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시민의 뜻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또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와 전체의원간 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견제와 건설적인 협력을 병행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에 힘썼다.

박일 의장은 "불확실성이 이어진 한 해였지만, 정읍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의회의 역할을 집중해 왔다"며, "2026년에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해결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이만재 부의장 "소통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 실현"

이만재 부의장은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 발전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 제고에 힘써 왔다. 특히 의원 간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책임 있고 신뢰받는 의정 운

□ 경제산업위원회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안전한 정주 여건 강화"

경제산업위원회(오명제 위원장, 송기순 부위원장, 고경윤,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최재기, 서향경 의원)는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정주 여건 조성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위원회는 연중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관리 체계를 면밀히 검토했다. 내장산자연휴양림과 국가유산미디어아트관 등의 주요 사업 현장의 운영 실태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지난 소성면 산불과 관련해 신속한 현장 점검과 관련 지원 법규를 제정하여 피해 구제에 앞장섰다. 아울러, '정읍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 등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생회복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책임있는 예산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승범 위원장, 오승현 부위원장, 이복형,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송기순, 오명제 의원)는 지난 1년간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통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최신 정책 흐름과 의회 운영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기관 교육에 적극 참여했고,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정책 연구와 입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했다.

이러한 역량 기반으로 '정읍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의회 운영의 다양한 의견이 조화롭게 논의될 수 있는 소통의 틀을 마련했다. 또한 '정읍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 홍보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열린 의회 구현에 기여했다.

□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시민의 건강, 정읍의 환경을 위한 정책 대응"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이상길 위원장, 황혜숙 부위원장, 고경윤·정상철·최재기·오승현·한선미·고성환 의원)는 초고압 송전선로와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 피해 및 주민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그간 환경·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관계부서 업무보고 청취, 현장방문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면밀히 점검하며 소통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초고압 송전선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내용과 쟁점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우려와 요구 사항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소통과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아울러,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전라북도의 어떠한 형태의 허가기간 연장이나 조건부 승인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신정읍변전소·고압송전선로 반대 정읍시민대회



丙午年
병오년

202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以聽得心
이청득심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때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군산시의회
GUNSAN CITY COUNCIL

2026년도 군산시의회 운영계획안

회기별	기 간	회의 일수	주 요 내 용
제280회 임시회	1. 26.(월) ~2. 5.(목)	11	· 부의안건 처리 ·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281회 임시회	3. 9.(월) ~3. 19.(목)	11	· 부의안건 처리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해방기) ·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편성 시) · 결산검사 위원 선임
제282회 임시회	4. 13.(월) ~4. 16.(목)	4	· 부의안건 처리
제283회 제1차 정례회	6. 22.(월) ~6. 25.(목)	4	· 부의안건 처리 · 2025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284회 임시회	7. 1.(수) ~7. 2.(목)	2	· 제10대 군산시의회 개원식(전반기 원구성)
제285회 임시회	7. 14.(화) ~7. 23.(목)	10	· 부의안건 처리 · 특별위원회 구성(예산결산, 윤리) ·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제286회 임시회	8. 25.(화) ~9. 3.(목)	10	· 부의안건 처리 ·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편성 시) ·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제287회 임시회	10. 12.(월) ~10. 22.(목)	11	· 부의안건 처리 · 26년 업무실적 및 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288회 제2차 정례회	11. 10.(화) ~12. 18.(금)	39	· 부의안건 처리 · 행정사무감사(9월간) · 2026년 결산추경예산(안) 심의 ·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

※ 총회의 9회(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회의일수 102일(정례회 43일, 임시회 59일)

* 본 계획(안)은 의회 일정과 추경예산 편성 및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